생태스포츠 참여자에서 환경활동가로의 변화 과정 연구

김태엽(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연구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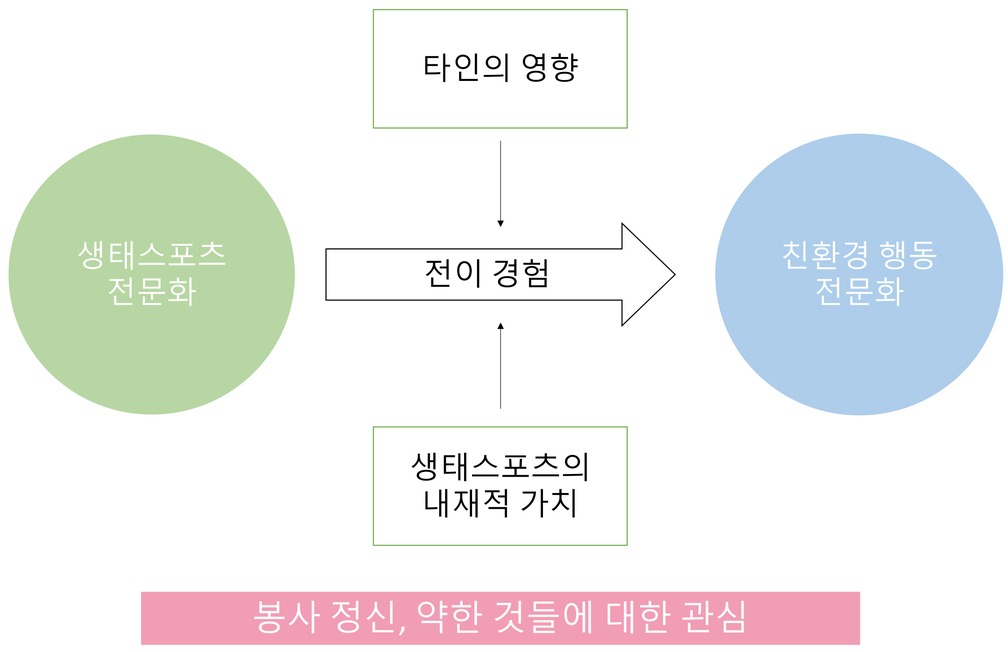
교육부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서 생태전환교육을 강조하며 생태전환교육을 '기후변화나 환경재난 등에 대응하고 환경과 인간의 공존을 추구하며,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생태적 전환을 위한 교육'으로 정의했다. 체육과에서는 교과 영역 중 스포츠를 기술형 스포츠, 전략형 스포츠, 생태형 스포츠 3가지로 분류하여(교육부, 2022) 스포츠에서 생태전환교육을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 및 불확실성에 대비한 교육을 강화할 것임을 천명했다. 이런 흐름에서 본 연구를 통해 연구 참여자들이 생태스포츠 참여에서 친환경 행동 실천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어떤 공통 경험을 하였는지 분석하여 후속 연구 및 스포츠 생태전환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생태스포츠 참여자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 생태스포츠를 시작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계기로 환경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 친환경 행동까지 실천하게 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나타나는 공통 경험을 분석함으로써 체육과에서의 생태전환교육 가능성을 탐구하고, 생태형 스포츠 교육과정 및 예비교원 생태전환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본 연구는 생태스포츠에서 환경활동가로의 변화 과정을 탐구함으로써 향후 스포츠와 환경 교육 분야의 연구 및 실천에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생태스포츠 참여자들이 친환경 행동까지 나아가는 과정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해석학적 현상학 연구 방법을 사용하였다. 먼저, 연구 참여자들의 개인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성별, 나이, 학력, 직업, 생태스포츠 경력, 생태스포츠 종류, 친환경 행동 경력이 포함된 인적정보 질문지를 작성하고 응답을 받았다. 이후,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 약 60분의 기본 심층면담을 각 1회 진행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심층면담에서는 연구 참여자들의 생태스포츠와 친환경 행동에 참여하게 된 동기와 과정, 생태스포츠와 친환경 행동에 참여한 후의 삶에 관하여 이야기했다. 심층면담은 연구 참여자가 가장 편안하게 응답할 수 있도록 그들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진행되었으며, 면담 진행 전 연구 참여자에게 동의를 구하였다. 면담은 미리 준비된 가이드라인에 따라 진행되었고, Patton(1990)의 면담지침법을 따라 주요 주제와 질문을 사전에 구체화하여 수행되었다. 마지막으로, 문헌연구를 통해 기존의 선행 연구와 이론적 배경을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본 연구의 분석 결과와 비교하였다.

연구결과

본 연구는 생태스포츠 참여자의 전문화 과정을 분석한 결과, 참여자들은 스포츠에 대한 '관심' 단계에서 시작하여, '진입', '유지', '활성', '전문화 유지' 단계를 거치며 발전해 나갔다. 생태스포츠 참여자들은 진입~전문화 유지 단계 중 하나에서 '전이 경험'을 통해 친환경 행동 전문화의 '관심' 또는 '진입' 단계로 넘어갔다. 이러한 전이 경험은 생태스포츠 활동에서 얻은 환경적 인식을 일상 생활의 친환경 행동으로 확장시키는 중요한 매개 역할을 하였다. 친환경 행동의 전문화 과정은 '관심', '진입', '유지', '자율적 전문화', '확산적 전문화' 단계를 거치며, 이 과정에서 참여자들은 다양한 내부적, 외부적 '걸림돌'을 경험하고 이를 극복하거나 후퇴 또는 유지하였다.



생태스포츠에서 친환경 행동으로의 전이 촉진 요인 도식화

논의

본 연구의 논의 파트에서는 생태스포츠 참여자들이 친환경 행동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을 심층적으로 탐구했다. 첫째, 생태스포츠 참여자들의 전환 경험은 여가 전문화 단계 중 유지 단계에서 활성 단계로 나아가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며, 커뮤니티, 함께하는 사람, 이벤트와 같은 대인 경험이 촉진 역할을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전이 경험은 생태스포츠 전문화 단계의 진입, 유지, 활성, 전문화 유지 중 하나에서 친환경 행동 전문화 단계로 나아가는 중요한 계기이다. 연구 결과 봉사 정신, 약한 것들에 대한 연민 등 연구 참여자들이 본래 가지고 있던 기질에 생태스포츠의 내재적 즐거움과 이벤트, 커뮤니티 경험, 지인 영향 등 타인의 영향이 전이 촉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생태스포츠 전문화 과정으로의 전이 이후 참여자들은 비판적 시선이나 설득에 대한 두려움, 인프라 문제, 생계 문제 등 다양한 내/외부적 결림돌을 겪었다. 이러한 걸림돌을 극복한 참여자들은 다음 단계로 나아갔으며, 그렇지 못한 경우 이전 단계에 머물거나 후퇴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생태스포츠를 하며 내가 밟고 있는 땅의 감각, 눈의 감각, 자연의 소리, 공기의 흐름, 함께하는 타인과의 교류 등을 느끼며 자연과의 연결감, 타인과의 유대감을 느꼈다고 하였다. 이에 현재 제안된 '생태형 스포츠'에서 본 연구에서 제안한 생태스포츠 개념을 도입하여 자연 및 타자와의 연결감을 높이고, '마음의 씨앗' 을 심는다면 생태스포츠를 통해 몸을 움직이는 움직임에서 나와 사회를 변화시키는 운동으로까지 (from movement to movement) '생태전환교육'의 교육적 효과를 보다 질 높게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이문진, 정성한(2022), 테니스 동호인의 여가 전문화 과정, **한국융합과학회지, 11**(11), 151-167.

김원정(2024), 지속가능발전(SD) 연구 동향을 통해 본 스포츠교육 영역의 확장가능성 탐색,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31**(1), 1-29.

정철, 김윤지(2024), SDGs 연계 교육에서 미래의 지구 환경에 대한 예비지구과학 교사들의 인식, **교육과학연구, 26**(1), 111-132.

Stebbins, R. A.(1982), Serious leisure: A conceptual statement. *Pacific Sociological Review, 25*(2), 251-272